



가정 환경과 성격 형성

鄭 海 岩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인격과 정서 발달에 있어서 비타민과 같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머니가 없어도 아이의 신체적 성장은 이루어 지지만 정신적 발달엔 비타민 결핍증과 같은 여러가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과연 세살 버릇이 여든에 이른다는 속담을 놓고보면 유아시기의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겠느냐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체험으로 누구나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기에 다만 어떤 비타민을 어떻게 언제 줄 것인가 그 처방을 알면 족할 뿐일 것이다.

먼저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알아야 되겠다. 세상에 첫 울음으로 신고를 마친 꼬마는 엄마와의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관계라기 보단 정확히 말해서 「젖」과 자신의 「입」과의 한계를 모르는 어찌면 천치와 같은 의존의 동물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눈이 있는데 어미를 알아보지 못하며 귀가 있는데 역시 소리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고파 울면 그 따뜻한 「젖」이 아이의 기분을 따뜻한 잠으로 이끌고, 또 배고프면 울면서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젖」의 존재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눈과 귀가 트이면서 「젖」은 어머니로 인식되고 거기 이른바 사랑이 교류되기 시작하면서 만족과 안정이 싹트며 세상은 어머니와 자기만으로 돼 있다는 착각속에 흠족하게 된다. 모든 만족이 「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이다.

일년이 지나면 손발이 자기 의사에 따라 조정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대소변을 가려주도록 그 위대한 어머니에 의해 요구된다. 대소변을 가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떠들석하

게 칭찬을 받곤하면서 아이는 일방적 의존관계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에 따른 흥정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도 알게 된다. 할까 말까 망서림의 태도와 동시에 여의치 못할 때의 두려움이 부끄러움을 이기기 위해 자칫 강박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는 이른바 향문기에 접어든다.

세살쯤 되어보자, 이제 걷고 말하고 제법 자기를 자신이 조정하여 어머니와의 관계를 즐겨오는 중에 새삼 아버지의 강력한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뿐인가 새로운 동생이 생기면서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기와만의 관계에서 떨어져 가는 것을 알게되고 불안하기 시작하게 된다. 한편 사내놈은 자기가 달고 있는 고추에 자기도취를 맛보고 그것이 없는 여자아이들은 열등감과 질투를 경험한다. 프로이드는 이시기를 에디프스·킬플렉스가 생기는 때라고하여 사내아이에게 살부원모(殺父願母)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것은 자칫 죄책감을 자극하는데 기독교적 원죄(原罪)의 의미도 이런 상징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연약함과 사회(부모)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내놈은 아버지를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게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이때가 만다섯살 즈음이다. 사내놈은 더욱 극성스러워지고 계집아이들은 인형놀이에 열을 올리는 그런 시기다.

요컨대 위의 세 구분된 시기를 간략하게 말해서 1. 신뢰감대 불신 2. 자율성대 수치감과 의구심, 3. 창의성대 죄책감의 갈림길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감과 안정감과 자율성 및 창의성의 바람직한 아이로 키우고저 애쓰는 부모의 역할은 이런 비타민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① 아이로 하여금 지나친 만족에 머물러있지 않도록 해야한다. 냉대보다 더 나쁜것은 과잉보호라고 알려져 있다.

② 아이를 인형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대소변을 일찍 가린다고 칭찬하는 나머지 그 불안때문에 융통성없는 구두쇠, 강박환자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③ 따뜻하고 아늑한 부모자신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돈은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겠다.

이렇게 하므로써 어른의 옷에 딱 맞는 몸과 마음을 갖는 정말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필자=경희대의 외래교수. 정신과 전문의·의박>